

!!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가짜]

의하신로

1990. 11. 1. (木)

[12]

環境保全

녹색의電話 環境상담주세요

두달새 1백13건 : 大氣汚染 1위

「녹색의 전화」(대표·朴英淑평민의원·784-2003~4)가 지난 8월 28일 개설된 이후 두달동안 모두 1백13건의 상담이 접수돼 하루 2건이상의 환경공해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전화를 오염원별로 구분하면 대기가 25건(9월말기준·총접수8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음진동 21건·폐기물 18건·수질 9건·주거환경 5건·골프장·자연훼손 각각 2건순으로 나타

공장관련 公害피해 고발 많아

났으며 식품 등 기타가 5건이었다. 상담전화는 특히 개인상담이 73건으로 압도적이었으나 집단민원도 16건에 달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5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 17건·충청 6건·경상 5건·전라 1건·기타 14건(익명제보) 순이었다. 또한 상담전화를 건 이유를 목적별로 나누면 피해구제가 46건으로 환경공해의 피해를 직접받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고 건의 16건·예방 11건·제보 10건·고발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녹색의 전화」 상담자인 申창현씨(평민당 전문위원)는 「상담내용의 주종은 공장의 환경오염이다」라고 말하고 「수질은 공장폐수, 대기는 공장굴뚝매연, 그리고 소음진동은 도시형공장과 건설소음 등이다」라고 덧붙였다.